그대는 자비보살

이화순 조계종 포교사



봉사 경력 20여 년의 이화순 포교사는 인연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실천한 20여 년 봉사인생…"남 도우면 나도 행복"

불교 인연 맺고 나에서 타인 중심 변화

2004년 포교사 품수 후 봉사활동 본격

목욕 · 배식봉사부터 법회 지원 등 '다양'

힘들 땐 30초라도 멈추고 마음 내려놔

10년 전부터 〈금강경〉 등 사경도 시작

SNS로 부처님 말씀 나누며 '포교' 열심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아부지(아버지),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도 잘 지내셨죠?"

봉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화순(66) 조계종 포교사의 인사에 조용하던 공간이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병실 문 너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왜 이제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익숙한 듯 그의 손을 맞잡은 어르신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익숙한 풍경이다. 매주 2~3번씩 반복되는 장면이지만, 그는 늘 처음처럼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는 어르신들의 말 한 마디가 숱한 날들 그의 발걸음을 병원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봉사는 그의 일상이 됐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소외계층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불교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1982년, 신심 깊은 불자 남편을 만나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함께 사찰을 찾아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점차 불교의 사상과 교리에 매료됐지만, 막상 불교를 설명하자니 아는 게 없는 것 같았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곧바로 사찰 불교대학을 찾았다. 기초교육을 받고 불교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환희심이 솟고 행복감에 벅찼다. '사성제' '팔정도' '인과법' 등 불교 용어를 하나둘 알아갈수록 그의 인생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엔 성격이 모나고 결벽증도 있었어요. 깔끔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불교가 알려줬어요. 모든 집착이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조금씩 내려놓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나 하나 편하겠다고 주변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병원법당에서 신입 포교사들에게 목탁 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화순 포교사는 군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상장을 받았다.



환자가 선물한 종이 발우. 목탁을 담아 보관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에서 이웃돕기 모금을 하고 있다.



대학병원 병원법당 개원 1주년 행사에서 기념촬영 모습.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말을 꺼내기 전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게 됐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그는 배움에만 머물지 않았다. 불교가 자신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를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솟았다. 큰 욕심은 없이 그저 한두 사람에게라도 올바른 불교를 전하고 싶었다.

마침 불교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배 도반들이 이미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배워 불교를 설명하는 모습이 부럽고 인상 깊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2004년 포교사 시험에 도전했다. 필기와 목탁 습의, 1분 스피치 등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 마침내 정식 포교사가 됐다.

그가 포교사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방법은 '봉사'였다. 첫 활동지는 불교계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연꽃마을 감로당. 한 달에 두 번씩 이곳을 찾아 와상(臥牀) 어르신들을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돕고, 말동무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목욕 봉사다.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을 안아 옮기고, 욕실로 이동해 바닥에 눕히고 씻기는 과정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늘 무릎을 꿇어 어르신들을 단단히 지탱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늘 조심 또 조심, 긴장의 연속이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항상 보람찼다. 그렇게 15년. 그는 묵묵히 어르신들 곁을 지켰다.

"어르신들이 처음엔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대하듯, 또 친구 대하듯 진심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했죠. 한 해 두 해 추억이 쌓이니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양로시설 봉사일을 피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에도 꼭 들렀다. 사회복귀를 앞둔 환자들에게 불연을 맺어주기 위해서다. 병실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불교가 잠시라도 위로가 되길 바랐다. 처음 그를 맞이한 건 무표정한 얼굴과 냉담한 반응뿐인 환자 10명 남짓. 말을 걸어도 선을 긋듯 딱딱하게 끊기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웃종교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법회인 만큼 더 잘 해내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다. 무작정 불교 경전을 읽었는데, 흥미 없는 환자들의 표정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다. 어렵고 복잡한 경전은 접었다. 대신 찬불가를 함께 부르고, 불교 서적을 나눠 읽으며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려 애썼다. 그의 정성 덕분일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이 먼저 자리에 앉아있고, 스스로 불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한 환자는 종이로 손수 접은 발우 모양 상자를 선물로 건네기도 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열심히 만들었다"는 환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 발우에는 목탁을 담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간식 지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복바라미 모금 캠페인, 군법당 법회와 간식 지원, 사찰 청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현재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대학병원 병원법당에서 법회 진행과 환자·보호자 상담을 맡고 있다. 언제나 누군가의 '빈자리'를 향해 있는 그는 20년이 넘게 봉사의 길을 걸어온 '봉사 전문가'다.

물론 오랜 시간 봉사를 이어오면서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 그럴 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단 30초만이라도 멈춰 마음을 내려놓는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선을 살짝 돌려보기도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도 피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돕는 그만의 비결이다.

"나도 사람이니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결국 그 한 걸음을 떼게 돼요.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죠. 한번 못 간 적이 있는데,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갈걸, 계속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는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 신행에도 열심이다. 꾸준히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정진하고 있고, 10년 전부터는 스님의 권유로 〈금강경〉 〈화엄경〉 〈법구경〉 등을 사경하고 있다. 한 자 한 자 따라 쓰고, 의미를 해석하면서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다.

"그냥 읽을 때랑 쓸 때는 다릅니다. 글을 읽고, 쓰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경은 1석 3조 신행 방법이에요."

그는 매일 사경한 내용을 SNS로 공유해 도반들과 부처님 말씀을 나눈다. 글귀 하나에도 힘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이런 작은 실천도 그에겐 중요한 포교다.

그는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인연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곧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봉사하느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적도 있지만, 그런 삶을 존중해준 가족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등을 닦던 그 손이 환자의 마음을 두드렸고,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또 다른 어르신에게 다가간다. "아부지, 오늘은 내가 해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